

봉축사설

이제 실천이 남았을 뿐이다

불자들의 신행의식(信行意識)에 반가운 수치가 보인다. 현대불교신문이 개원 25주년을 맞는 한국불교연구원과 함께 행한 '재가불자 신행의식 설문조사'에서 불자들은 신행 이유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72.3%)'와 '경성성불을 위해 (21.8%)' 등을 꼽았으며 사주 관상 점 등을 안본다는 불자가 86.9%였다. 이는 한국불교가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종래의 이미지를 벗고 한 단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불교는 어디까지나 '깨달음'의 종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 가운데 하나인 '우리도 부처님같이'의 뜻도 이 깨달음을 강조해 보여 준다.

깨달음이란 누구에 의지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혀든 등불 아래 철저한 주제적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경지다. 어떤 신성한 대상을 절대시하며 믿고 받든다는 가장 종교적인 단어인 신앙(信仰) 대신 불가에서 신행을 앞세우는 이유도 여기 있다. 바르게 믿고 이해하

고 이를 실천에 옮겨 깨침에 이르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의 보살의 길만이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이끌 수 있으며, 이 믿음의 네 기둥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불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기복이라든가 민속적 신앙 등은 사실 부처님의 정법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기복과 원망(願望)은 인간 간의 가장 근원적인 회귀며 이를 배제하고는 종교신앙을 말할 수 없다. 부처님도 여기에 무심하시지 않다. 석존께서 깨달음을 열고 이후 45년간 인간구원의 진법에 전념하신 것도 고집멸도(苦集滅道)란 현실적 고통에 대한 분명한 처방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렇다고 자신과 가족만의 안녕을 위해 유명 기도처나 찾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적어도 불자라면 '나'에 대한 확장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웃이 좋아지고 우리 사회가, 그리고 나라와 세계가 좋아진다면 곧바로 나에게 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웃과 세계야말로 확장된 나 자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나 혼자만의 안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세계가 좋아질 것을 바라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철저한 이기(利己)야말로 이타행(利他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번 의식조사에 응해준 한국불교 연구원의 구도회나 우리는선우, 동산반야회, 삼보법회, 바른법연구원, 정토회 등 불교계에는 수행을 중심으로 한 신행단체들이 많다. 지금도 개인적으로나 모임 등을 통한 이들의 깨달음을 위한 정진의 열기는 자못 높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의 수행 결과를 이웃과 사회에 회향하는 구체적 실천행위를 보여주는 데는 인색하다는 느낌을 준다. 불교의 자비사상이야말로 이웃과 세계에 대한 능동적인 관심과 회향을 요구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대다수 불자 스스로가 사회봉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국불교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점을 사회봉사로 꼽았다. 생활속에서의 나누는 삶 실천에도

'잘하고 있다'는 불자에 비해 '어쩌다 실천' '이론으로는 하는데 실천이 어렵다' '전혀 못하고 있다'는 불자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불교가 이웃과 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부끄러운 지적을 받게 충분하다.

오늘날 불교계에서도 환경이나 생명존중, 빈곤·기아의 퇴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능동적인 사회참여 활동의 열기가 일고 있다. 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땅을 정도로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의지의 실천과 노력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타종교에 비해 아직은 미약한 수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 우리들의 올바른 신해행증의 실천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면이 아닌가 한다.

돌이켜보면 근래 한국불교에는 부끄러운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교가 인류의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불교인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그 자체에 있다. 불교

야말로 배타적이 아닌 호혜와 포섭의 종교다. 육바라밀행과 사십법의 가르침은 이웃과 세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경제적 어려움과 세기말 현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때 분명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책임을 느끼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45년간의 부처님 설법은 다름아닌 행동으로의 가르침, 사는 모습 자체로서의 가르침이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은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로 더욱 빛나게 된다. 타종교와의 비교 우위도 신행이 아니고는 증명해 보일 수가 없다.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은 곧바로 포교와도 연결된다. 그런 의미에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신행을 한다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의식이 믿음직해 보인다.

이제는 불자들의 실천이 남았을 뿐이다.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호국불교 위대한 전통 경제난 극복 동력으로"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을 모든 불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날을 맞아 세상의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스스로 고행의 길을 선택하여 깨달음을 얻고 중생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부처님의 높은 공덕을 기립니다.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씀하실 만큼 인권을 존중하셨고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철저한 평등사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유불성(萬有佛性)'의 말씀을 통해 사람은 물론 하찮은 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화합과 공존의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불교는 1천6백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통해 단순한 종교의 차원을 넘어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불교문화는 찬란한 민족문화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부처님의 크나 큰 원력으로 온 겨레가 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하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국불교의 위대한 전통은 우리들의 자랑스런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 불교계는 경제난극복과 지역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데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호국불교의 자랑스런 전통을 되살려 온 국민의 화합위에 지금의 경제난극복을 돕고 희망의 새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월 22일 대통령 김대중

화합과 자비의 공동체 '염원'

16일 연등축제 3만불자 동참

주요도시서 제등행진... '국민축제'로

불기 2543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가 16일 조계사 옆 우정국로와 동대문운동장, 종로거리 등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거행됐다. <연등축제 화보·이모저모 12면>

이날 오후4시부터 7시까지 동대문운동장에서 봉행된 연등법

등걸이에 등을 걸어 종로거리를 등불의 물결로 만들어 연도의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등행진을 마친 불교도들은 우정국로에서 회향한마당을 열어 부처님오신날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4천여개의 연등으로 '우리도 부처님 같이'라는 등불글씨(6mX60m)를 만들어 화합과 자비의 공동체 구현을 염원하며 연등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날 오전10시부터는 우정국로에서 등만들기, 전통문양 탁본 등 체험마당, 놀이마당, 불교사진 및 그림 전시회, 우리농산물 장터 등이 펼쳐져 축제분위기를 연출하며 외국인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왼쪽에서 두번째)은 8일 KNCC 김동원 총무를 만나 종교간의 화합을 강조했다.

사면동의안 차기총회로 이월

조계종 140회 총회 btn 정상화 촉구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통)는 11일 제140회 임시총회를 열고 총무원이 요청한 사면동의안 건을 논의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다음 회기서 심의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이번 총회에 83년 이후 정계받은 24명의 사면동의를 총회에 요청했다. 호법부장 종교스님은 "총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차기총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총회는 상정된 9개 인건 가운데 btn특위 활동보고, 사면동의 건, 직능직 선출위원회 선출

고산스님, 타종교지도자 잇단 만남

8일 김동원 KNCC 총무 12일 정진석 대주교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잇따라 개신교와 천주교 지도자들을 만나 종교화합을 다지고 있다.

고산스님은 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를 방문, 김동원 총무와 환담했다. 고산스님의 이번 방문은 두 차례(1. 4일)에 걸친 김 총무의 총무원 방문에 답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고산스님은 "종교지도자들이 먼저 화합해야 국민들이 서로 존중한다"며 종교지도자들과의 만남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고산스님에게 북한들기 등의 사업에 불교와 개신교가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고산스님은 12일에는 명동성당 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을 방문, 정진석 서울대교구장과 환담했다. 고산스님은 이날 정 대주교에게 '심여공화사(心如工畫師, 화공의 마음대로 그림이 그려지듯, 마음이 일체의 근원)'라고 쓴 부채와 햇차, 저서 <선, 깨달음의 길>을 선물했다. 정 대주교도 고산스님에게 로마 시스틴성당의 천정화가 조각된 기념메달을 전하며 우의를 표했다.

정진석 대주교는 "종교지도자들이 합심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조만간 총무원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의 KNCC와 서울대교구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운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은누리에 자비를...

btn 정상화 촉구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통)는 11일 제140회 임시총회를 열고 총무원이 요청한 사면동의안 건을 논의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다음 회기서 심의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이번 총회에 83년 이후 정계받은 24명의 사면동의를 총회에 요청했다. 호법부장 종교스님은 "총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차기총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총회는 상정된 9개 인건 가운데 btn특위 활동보고, 사면동의 건, 직능직 선출위원회 선출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법통)는 11일 제140회 임시총회를 열고 총무원이 요청한 사면동의안 건을 논의했으나 절차상의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다음 회기서 심의하기로 했다.

총무원은 이번 총회에 83년 이후 정계받은 24명의 사면동의를 총회에 요청했다. 호법부장 종교스님은 "총회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차기총회에 다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총회는 상정된 9개 인건 가운데 btn특위 활동보고, 사면동의 건, 직능직 선출위원회 선출

<奉恩學林> 제1차 강좌 '화엄특강' 수강생 모집

"공부하는 봉은사를 만들고자 합니다."

출요경(出要經)에 이르기를 "學人이 修行해야 할 것은, 本末에 통달하고 白法·黑法을 정확히 인식하여 병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원인을 알며, 顛倒와 진도 아님을 능히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에 맞추어 聖藥(부처님의 가르침)을 쓰는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도심 속에서 傳法의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學人으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빈 것을 채우고자 하나 함께 할 도반과 전문교육기관이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니다. 탄허 큰스님의 月精寺 華嚴 특강과 관음 큰스님의 棟華寺 唯識 특강의 전통을 이어 <봉은학림>을 개설, 각성 대강백을 모시고 그 첫번째로 <華嚴經入 法界品>을 선정, 함께 공부할 도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하시어 부처님의 혜명이 면면히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 제 목 : <봉은학림> 제1차 강좌 '화엄특강'
- 강 사 : 각성 큰스님(화엄학회 회장)
- 강독경전 : 화엄경 입법계품
- 기 간 : 1999년 6월14일 ~ 7월15일까지(한달)
- 수업시간 : 매주 월·화·수·목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 봉은사 법왕루
- 수강대상
1) 수강생 - 서울 경기 지역 스님 (선착순70명)
2) 청강생 - 각 대학 불자 교수 및 화엄경을 수강할 수 있는 일반 불자 (선착순50명)
- 수 강 비 : 7만원(교재비 포함)
- 문 의 : 봉은사 포교실 (전화 02)516-5652)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혜

사설

문화재廳에 거는 기대

정부가 중앙부처 행정기구를 축소 개편하면서 문화재관리국만큼은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해 청(廳)으로 승격시킨 것은 문화정책의 측면에서 매우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예산이나 전문성 문제로 겪었던 문화재 보존과 관리상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불교계로서는 이같은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문화재청 설치배경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문화의 세기'를 앞두고 문화입국(文化立國)의 가치를 내건 정부의 의지와 문화계의 요구가 공명하여 형성했기 때문이다. 부존자원도 변변치 못하고 국토도 넓지 못한 우리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입국' 밖에 방법이 없다.

석굴암과 불국사 팔만대장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하고, 영국여왕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와 문화재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 문화의 세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이번 문화재청 승격은 바로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문화재청'을 설립했다고 문화대국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재청이 제대로 기능하고 역할하도록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문화재청의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우리는 곧 서구화를 세계화로 인식하고 수많은 문화와 문화재를 파괴해왔다.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을 헐어내고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유서깊은 문화재를 손상시켰다. 최근에도 건축법을 개정해 전통사찰 크기에 위약사항을 짓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문화정책으로는 문화입국의 꿈을 실현할 수 없다. 앞으로는 모

든 정책이 문화주의적 발상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재대로 된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재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1급 청으로 승격되면서 기구가 확대됐다고 타부처의 비전문가가 맡고있는 것을 차고 들어오려면 청승격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반드시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사학 등 문화유산과 직결되는 전문가들을 임용하여 학예자 중심의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과거 문화재관리국 시절 순환인사라는 명목으로 행정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해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경험을 반성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책과 예산상의 특별한 배려다. 불교문화재는 문화재이면서도 종교적 신앙의 성보라는 양가적(兩價的) 가치를 지닌다. 불교문화재는 '성보(聖寶)'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관리를 해야 한다.

예컨대 경북공대 석탑이나 전국에 산재한 불교문화재들이 신앙의 성보로서 예배될 수 있도록 사찰로 이관하고, 경주박물관의 파불(破佛)에 대해서도 신앙적 감정을 고려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다. 문화재청은 바로 이런 문제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청의 승격은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그런 만큼 할 일도 많고 기대도 크다. 관계자들은 청승격을 계기로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새시대 불교포럼' 출범

전문직 젊은재가 32명 참여 사회정의-불교발전-평화통일 분과별 불교사상 입각 대안제시

젊은 재가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사회와 불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시대 불교포럼'을 창립한다.

'새시대 불교포럼'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홍사성 불교시대사 주간, 김연규 외대교수)는 12일 오후 7시 조계종 교구문화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새시대 불교포럼은 부처님의 종교연기론적 사상에 입각하여 사회정의, 평화통일, 불교발전을 목표로 월례포럼, 종단지원사업, 소식지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간사업인 월례포럼은 사회정의, 불교발전, 평화통일 등 3개 정책분과를 두고 매월 한가

지식 사회제반문제를 각 분야별로 불교사상에 입각하여 심층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월례포럼의 내용은 소식지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게 된다.

특히 새시대 불교포럼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능동적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종단발전기 사업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종단의 각종 사회정책과 종단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연구작업을 통한 정책적 지원과 인력양성을 통해 종단발전기 사업으로 종단운영을 지원한다는 것.

홍사성 창립준비위원장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적인 사회기원활동과 종단지원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연구및 조직사업, 대중·교육사업등을 시행

할 것이다"고 밝혔다.

불교포럼에는 이종철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김우호(행정자치부 사무관) 배정희(과학기술부 사무관) 최수종교수(한림의대) 박경준, 최순열교수(동국대) 박일환(국민회의 정책위원) 유연(LG증권 과장) 이원석(동부지침 검사) 김형욱(청와대 종합상황실 과장) 박영규(작가) 신상진(성남의원 원장)씨등 32명의 각계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다.

창립준비위원회는 정책위원장 박승원 소장(시스템경영연구소), 조직위원장 정용정 사무소장(재가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노규남(경희대 강사), 실행위원장 조성열(성균관대 강사)씨 등이다. 새시대불교포럼은 재가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회비는 월 1만원. (02)725-4282 김원우 기자 (www.buddhania.com)

조계종 해암종정 부처님오신날 법어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울며 벌 나비 춤추니 어허 좋으니,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오신날 모든 중생 생일 잔치 열시 구 좋고 좋다.

心)을 읊지어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본연성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본연성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칠래야 해칠 수 없다.

부처님은 일체중생이 본래 천진불(天真佛)임을 깨우쳐 인간의 질대저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며, 오직 생사 일대사를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다.

인간의 본분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뒤 에라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근본 원리이다.

바다밑에 등불켜니 온세 상 밝아지고 허공으로 북을 치니 중생들이 잠을 깨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

심)을 읊지어다. 본분사로 말하지만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라.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

심)을 읊지어다. 본분사로 말하지만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라.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

심)을 읊지어다. 본분사로 말하지만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라.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公

심)을 읊지어다. 본분사로 말하지만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하도록 하라.

'공단과 '공원무료입장' 재협상'

조계종 관람료위원 15명 선출...위원장 해광스님



◇해광스님

조계종 총무원(위원장 고산)은 4일 불교교회관에서 관람료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도소지자의 당해사찰 무료입장'과 관련해 논의했다. 집행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협의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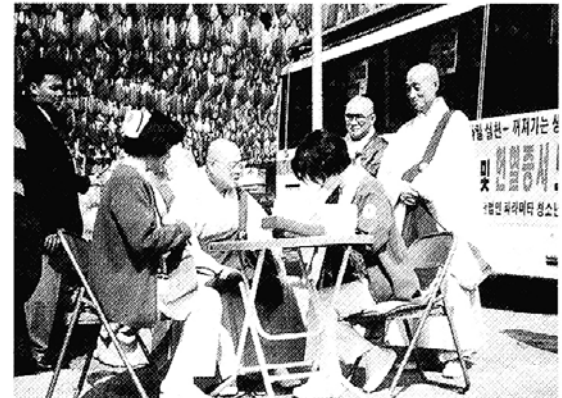
이에 따라 이날 포교원이 준비한 국립공원관리공단 규약 결의도 공단과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채택하기로 했다.

'관람료사찰 주지 일동'으로 발표하려 했던 결의문에는 △공단이 재적사찰에 한해 무료입장을 강행할 시 정부를 상대로 사찰소유토지의 보상문제와 관련한 법적 대응(이용료 청구 또는 공단시설물의 퇴거 등)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도들의 사찰출입 자유 보장 △신도소지자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징수하지 않는다 등 3개항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관람료위원회 위원을 선출했다. 관람료위원 15명은 다음과 같다. 해광(위원장, 법주사) 장운

(부위원장, 전등사) 범철(간사, 총무원 재무부장) 도후(신흥사) 도영(금산사) 녹원(직지사) 성오(범어사) 종상(석굴암) 양산(총무원 문화부장) 일연(통학사) 설송(대전사) 종고(천은사) 운수(내장사) 세영(신록사) 운공(운주사).

관람료위원회는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의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해광스님, 부위원장에 장운스님, 간사에 일철스님을 선출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자비의 헌혈운동

관람료위원회는 관람료사찰 주지회의의 직후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해광스님, 부위원장에 장운스님, 간사에 일철스님을 선출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정련스님)가 4일부터 '자비의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4일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조계사 신도들이 참석 헌혈운동에 동참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헌혈을 준비하는 모습. 김정은 기자(jekim@buddhania.com)

보림사-봉정사 관람료사찰 지정

조계종 관람료위원회(위원장 해광)는 4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전남장흥 보림사와 안동 봉정사를 관람료사찰로 지정했다.

보림사는 9산선문 가운데 최초로 개창된 사찰(759년 원표대사 창건)로, 칠조비로자나불과 상(국보 44호) 등 국보 2점과 보물 8점, 전남도유형문화재 1점 등 다수의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관람료는 1천원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방문한 사찰로 682년(신라 경문왕 2년)

의 선고를 연기하는한이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국방부장관 면담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종교권향대행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등 종교권향대행위원 4명은 7일 천용택 국방장관을 만나 "김태복소장의 101 여단 군법당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정관은 "김소장과 관련한 군사재판

의 선고를 연기하는한이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종교권향대행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등 종교권향대행위원 4명은 7일 천용택 국방장관을 만나 "김태복소장의 101 여단 군법당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정관은 "김소장과 관련한 군사재판

의 선고를 연기하는한이 있더라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과 종교권향대행위원장 현진스님(포교부장)등 종교권향대행위원 4명은 7일 천용택 국방장관을 만나 "김태복소장의 101 여단 군법당관련 뇌물수수 혐의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천정관은 "김소장과 관련한 군사재판

현대만평

737-8881



어·아가 없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관장 이해총스님 취임식

■일시: 불기 2543년 5월 12일(수) 오후 3시

■장소: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강당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계획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는 지난 5월 1일자로 부산광역시 남구청으로부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장 이해총 스님 취임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무 참석하시어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999. 5.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대표이사 정 관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상임이사 해 총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 장



시설 개요

■개관: 1996년 3월 4일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부지: 2,285㎡ 건물: 2,749㎡

※ 복지관 사업 안내 ※

- 복지관 사업
가정복지/아동복지/청소년복지/노인복지/장애인복지/지역복지/예약장 대만
- 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 부설 어린이집
- 부설 무료한방진료
- 부설 무료급식 사업
- 자원봉사자 모집
집안청소/세탁/방문간호/병원동행/말벗/이·마용/도배/사업 및 업무보조/기타
- 후원자 모집 (자비는 실천이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쿠르트 후원/우유 후원/현물 후원/결연금 후원 등
- 후원구좌: 부산은행 083-01-033926-6
예금주: 용호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은 법인세법에 의해 연말 정산시 5%한도내에서 면세혜택을 받습니다.